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2.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진중에서 쓴 일기.
4.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6. 섭취한 음식물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또는 만성 건강 장애.
7. 큰 나무의 밑동. 아저씨는 잘려 나간 소나무 ○○에 잠시 앉았다.
8.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
10.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의 거리.
11.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
13. 아시아 대륙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
16.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에 만납시다."
17. 두 명의 선수가 사방 8미터의 매트 위에서 맨손으로 맞붙어 상대 선수의 양어깨를 1초 동안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
19. 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
20. 더위를 피하기에 알맞은 장소. ○○○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22.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24. 출생한 후 한 번도 깎지 않은 갓난아이의 머리털.
25. 보통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이른다.

<세로열쇠>

1. 자기의 아들과 딸을 속되게 이르는 말.
2.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
3. 사물을 지탱하는 기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 뽀하다.
5.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용품이나 폐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일.
9. 꼬끼리의 엄니. 위탁에 나서 입 밖으로 뽀처럼 길게 뻗어 있다.
12. 흔히 술집에서 젓가락 장단을 치면서 부르는 노랫가락이나 대중가요.
14.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15. 강황, 마늘, 생강, 후추, 색소, 조미료 따위를 혼합해 만든 노란 가루의 향신료. 원산지는 인도이다.
18. 남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모임.
20. '리코더'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1.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 호텔 ○○○.
23.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발표: 1,333호



1,183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1688-8511

- | | |
|----------------|----------------|
| 이지은(달서구 용산로) | 손유진(달성군 화원읍) |
| 박성일(달서구 선원남로) | 이동영(달서구 이곡동로) |
| 진희영(달서구 달구벌대로) | 우정봉(달서구 달구벌대로) |

<1,183회 정답>

브	이	로	그	상	노	에
레	크	주	선	비		
이	롤	러	장	구	제	역
킹	콩		죽	십	자	
취		수		줄	자	
팔	빙	수	망	태	기	
생	취	채	집	망	세	
이	개	화	대	상	포	진
별	안	간	식	해		지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은행계좌안내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SC 제일은행 556-20-270245
- ▶간별 주간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주소: 푸른신문김현두)
- ▶발행인 김현두 *구독료 1년 15,000원
- ▶편집인 김현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신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